

#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번역 수용과 전후문학(자)의 월경

- 1990년대 일본문학 붐, 한·일 시민연대

이 행 선\*

## 요약

이 글은 일본 전후문학의 대표작가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1935~)의 소설, 산문, 방한 등을 통해 오에 겐자부로의 문학적 영향과 통시적 수용사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흔히 『개인적인 체험』(1964), 『만엔 원년의 풋볼』(1967)의 작가로 알려진 오에 겐자부로는 이미 오래전에 한국에 알려진 바 있다. 1960년대 초반 처음으로 작품이 번역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30여년이 지나 1994년 오에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한국을 찾으면서 번역이 본격화되었다. 그로부터 20년여 만에 걸쳐 4번의 한국 초청 방문이 있었고 2015년 한국에서 오에는 절필을 선언했다. 이처럼 그는 일본 전후문학의 대표자 중 한 명이지만 한국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는 문학자의 범주를 넘어 일본 실천적 지식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근 일본문학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상당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일본의 노벨문학상 작가와 그의 작품이 한국에 수용된 맥락을 구명(究明)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글은 오에 겐자부로의 통시적 수용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번역문화사 연구의 기획이다.

주제어: 전후문학, 전후민주주의, 노벨문학상, 동일본대지진, 번역문학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목차

1. 들어가며 : 오에의 절필 선언
2. 방한 이전, 초기 번역 수용
3. 노벨상 수상(1994)과 방한, 번역의 본격화
4. 문학자에서 시대의 지식인, 운동가로
5. 나가며 : '지금 여기' 『만엔 원년의 풋볼』 읽기

### 1. 들어가며 : 오에의 절필 선언

아베 정권의 우경화를 강하게 비판해온 반전·평화주의 지식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오에 겐자부로(80)가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소설 쓰기는 그만두고 반전 집회 또는 평화 시위 같은 실천형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935년생, 일본의 팔순 소설가가 2015년 3월 12일 연세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과거사를 반성하지는 않고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튿날 기자회견에서는 아에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메시지가 불명료한 소설 쓰기는 절고 반전, 평화 시위 참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출간한 소설 『만년양식집』이 마지막이다. 명확한 문장으로 호소문이나 성명서를 작성하는 데 여생을 바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커다란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했습니다. 평화헌법을 만들어 70년 동안 지켜왔는데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을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내에 번역 출간된 장편소설 『익사』는 지난 2009년 작품으로, 천황제와 군국주의의 폐해를 등장인물 아버지에 투영했습니다. 노작가는 침략전쟁 시기 조선인 위안부 동원으로 극단에 이른 여성 유린과 폭력도 아울렀다고 자평합니다.<sup>1)</sup>

1) 「오에 겐자부로 절필 선언...‘반전 시위 전념」, YTN NEWS, 2015.3.14; 「노벨상 오에 겐자부로 “日 우경화 행보 막고 평화 지키려 60년 가까이 써 온 소설 이젠 절필”」, 『국민일보』 2015.3.14.

2015년 3월 13일 한국 마포구 동교동 카페에서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일본문학을 대표하는 전후작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1935-)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절필을 선언했다. 199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문학계 거장이 ‘메시지가 불명료한 소설 쓰기를 접고 명확한 호소문이나 성명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문학의 종언을 선언한 셈인가. 당일 기자회견장은 장편소설 『익사』의 한국 출간기념회였고 출판 관계자의 곤혹스러운 모습이 펼쳐졌다.<sup>2)</sup> 문학 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작가의 작품이 독자에게 권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또한 『제국의 위안부』로 화제가 된 박유하 교수가 번역자로서 참석했는데,<sup>3)</sup> 기자는 오에의 말을 오해하여 『익사』에 조선인 위안부가 등장한다는 오보를 했다.

이 날의 광경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자국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절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행위는 그만큼 자신과 한국이 관련이 있다는 자의식의 표현이다. 그 전날 ‘연세-김대중 세계미래포럼’에 초청된 그는 과거사를 왜곡하고 우경화를 강화하는 아베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명확한 호소문이나 성명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은 일본의 우경화를 향하고 있다. 또한 오에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이후 반원전 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적 지식인 중 한 명이였다. 반핵·반원전 호소문이 남은 생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것이다. 동일본대지진 9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에서도 추모행사와 반원전 집회가 있었다. 주지하듯 지진 발생 초기부터 한국에서도 원전 사고가 특정 국가의 재난을 넘어서는 문제로 인식되어 많은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연대를 표명하고 지원과 교류를 본격화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따라서 오에는 단순히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아니라 일본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반전·평화주의자이자 반핵·반원전을 주장하는 실천형 지식인의 자격

2) 오에 겐자부로, 박유하 역,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28 익사』(2009), 문학동네, 2015.3.10.

3) 『제국의 위안부』사건으로 박유하는 역사수정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박유하는 오래 전부터 오에 겐자부로 작품의 주요 번역자 중 한 명이였다.

으로서 한국에 초청된 것이다.

한국에서 오에 겐자부로는 그동안 한국과 관련하여 작품 속 조선인상,<sup>4)</sup> 작가의 전후 인식<sup>5)</sup> 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정작 오에가 한국의 독자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연구자의 지적처럼<sup>6)</sup> 이 작가의 수용과 번역사는 논의된 바 없다. 오에의 방문과 『익사』 출간간담회에서 알 수 있듯 번역 출간과 작가 초청은 홍보와 출판 전략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문화적 이벤트다. 오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번역이 활발해졌고 총 6번이나 방한을 했다. 번역과 방한을 중심으로 오에의 수용사를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에 겐자부로의 수용이 한국인에게 각별한 것은 그가 스스로 ‘전후민주주의자’로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절필 선언 때 그가 반전 및 평화 시위를 천명한 것처럼, 일본의 진보적 식자층이 자국의 우경화와 전쟁 가능한

4) 고영자, 「오에 겐자부로 문학에 나타나는 한국인상(像) - 『아이 짝 옮기』를 중심으로, 『용봉 인문논총』 27권0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12, 31-56면; 조미경,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타자〉 표상 - 『만엔원년의 풋볼』(萬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에서의 제일조선인 표상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2.10, 435-453면; 최재철,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문학 속의 ‘조선인상’ - 『만엔 원년의 풋볼(萬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60권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6, 227-251면;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 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23권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4, 11-37면; 장인수, 「실재와 환영, 혹은 제의로서의 소설 쓰기 : 고마쓰가와 사건의 문학적 재현, 『한국학논집』 제7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9, 179-207면 등.

5) 서은혜, 「전후 지성인의 고뇌 오에 겐자부로-일본우익이테올로기에 대한 정신적 대결, 『역사비평』 통권 34호, 역사비평사, 1996.2, 289-304면; 유승창, 「오에 겐자부로 문학에서의 기억과 역사인식 : 『万延元年의 풋볼』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第32輯,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3, 255-273면; 홍진희,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전후인식과 그 전개, 『日本文化學報』 第34輯,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8, 559-574면; 안정화, 「오에 겐자부로 문학의 전후 민주주의적 표현 양상, 『日本語文學』 第38輯, 일본어문학회, 2007.8, 345-360면; 유승창, 「아시누마 사건과 오에 겐자부로 문학의 전후인식 - 『세븐틴』을 시점으로, 『일본학』 29집,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09.11, 251-274면; 송인선, 「오에 겐자부로의 초기소설 연구 - 전쟁의 상기와 전후(戰後) 성찰, 『일본연구』 43권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3, 267-286면 등.

6) 고영자, 『오에 겐자부로』,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6, 127면.

‘보통국가’화를 우려하는 배경에는 식민지배와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교훈이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의 전후민주주의자의 작품이 궁극하지 않을 수 없다. 오에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작품이 세계 각국에 번역되어 소개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대표적 양심적 작가, 전후작가, 전후민주주의자, 실천형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해온 오에 겐자부로는 과연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가. 과거 식민지 시대 많은 일본의 기독교인과 카프 문인이 박애나 계급의식을 아무리 강렬하게 다잡아도 민족의식을 초월하기 어려웠던 것처럼,<sup>7)</sup> 전후민주주의자에게도 민족주의나 민족차별적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이미 한국인은 고미카와 준페이(高木かみか)의 전쟁소설 『인간의 조건』(1960년 번역)을 통해 일본인의 자국중심적 역사인식을 경험한 바 있다. 전쟁소설은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문학에 속하지만 전쟁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일국사일 수 없는 전쟁재현이자 기억이다. 망각된 기억의 소설적 귀환은 누군가에게 ‘기억의 폭력’이자 상처이며 민족감정을 자극한다. 번역을 통해 국경을 넘기 시작한 전쟁문학의 전쟁기억과 전쟁체험은 국민의 역사의식과 민족감정을 확인하고 좌우하는 지점이다.<sup>8)</sup>

마찬가지로 번역을 통해 월경한 오에의 전후문학의 실체와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구명(究明)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오에 겐자부로는 고미카와 준페이와 달리 단순 유명문학자가 아니라 반전·반핵·평화를 외친 전후민주주의자이자 일본의 대표 지성인으로서 한국의 지성계와

7) 김윤식, 「開港1百紀 韓国과日本 오늘의座標 <13> 文學」, 『동아일보』, 1970.06.18, 5면.

8) 이형선, 양아람, 「1960년대 초중반 미·일 베스트셀러 전쟁문학의 수용과 월경하는 전쟁기억, 재난휴머니즘과 전쟁책임 - 노먼 메일러(Norman Mailer) 『나자와 사자』와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 『인간의 조건』」, 『기억과 전망』 36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6, 42-51면.

접촉해왔기 때문에 민간교류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에 겐자부로는 60여 년 동안 문단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 이에 따라 국면마다 그의 사회 및 역사인식, 사회적 발언도 변모해왔다. 오에의 문학적 성격과 전후인식을 이해하고 작가의 변모와 인식의 갱신을 분별해야 ‘한국의 수용과 번역’을 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의 이력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요구된다.

오에 겐자부로는 1935년 일본 시코쿠 에히메 현에서 태어났다. 그는 10세에 패전을 경험했고 고교 시절 불문학자 와타나베 가즈오의 저서를 접하고 1954년 도쿄대학에 입학해 프랑스 문학을 공부했다. 이처럼 외국문학의 영향하에서 성장한 작가는 사르트르, 도스토예프스키, 포크너, 블레이크 등 다양한 작가를 사숙하여 일본의 전후문학가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서양문학을 가까이한 작가로 평가된다. 1957년 오에는 『도쿄대학신문』에 게재한 「기묘한 일」이 호평을 받아 오월제상을 받았고 「死者의 사치」로 등단했다. 1958년 첫 장편소설 『새싹 뽑기, 어린 짐승 쓰기』가 출간됐다. 동년에 발표한 「사육(飼育)」은 아쿠타가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1963년 6월에는 『성적 인간』이 간행됐다. 「세븐틴, 「정치소년 죽다」와 같이 전후 일본의 정치사회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소설로 주목받던 그는 지적 장애아들 히카리의 탄생 체험을 바탕으로 쓴 『개인적인 체험』(1964)을 기점으로 인간의 공생과 구원의 문제를 다룬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967년에는 『만엔 원년의 풋볼』<sup>9)</sup> 다니자키 준이치로상을 수상했는데 이 작품은 작가와 일본문단이 뽑은 최고의 작품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반전·반핵 운동에도 참여한 그는 르포르타주 『히로시마 노트』(1965), 『오키나와 노트』(1970)을 출간하면서 실천적 지식인으로 활동을 확대했다. 그 결과 1994년 오에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이어 일본 작가로는 두 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02년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

9) 이 작품의 제목은 한국어에서 번역자에 따라 『만엔 원년의 풋볼』, 『만엔 원년의 풋볼』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본고는 일반적으로 많이 대중화된 후자의 것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지용 도너르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우익단체의 협박과 테러 위협이 지속되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었고 2015년 한국에서 절필선언에 이르렀다.

요컨대 이 글은 일본 전후문학의 대표작가인 오에 겐자부로(1935~)의 번역과 6번의 방한을 중심으로 소설, 산문 등을 통해 오에 겐자부로의 문학문화적 영향과 통시적 수용사를 고찰하는 번역문화사 연구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민간의 연대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처럼 한일관계가 경색국면일 때 양국 지식인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실정이다. 동아시아의 연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 따라서 본고의 번역문화사 연구는 일본의 대표적 ‘양심 작가’ 오에 겐자부와 한국인의 연대 가능성, 더 나아가 일본의 전후민주주의자가 한국의 지성이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 2. 방한 이전, 초기 번역 수용

오에 겐자부로는 1990년 최초 한국방문을 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그 이전까지 오에 문학의 번역을 살펴본다. 오에가 한국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60년 『일본전후문제작품집』의 출간이었다. 주지하듯 1958년 이후 세계문학전집 발간과 흥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 전후시리즈는 많은 독자를 확보한 중요 도서다. 편집위원은 “민족적 원한이 있더라도 한국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일본의 전후세계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전후에 가장 문제되었던 일본소설을 엄격히 추렸다”고 밝힌다. 이 책에는 오에 겐자부로의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사육」(1958.1)이 실려 있다. 이 소설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조그만 산촌에 미군의 비행기가 추락하여 흑인병사가 포로가 되었다가 마을 어른들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을 어린 소년의 시선으로 포착한 작품이다.<sup>10)</sup> 전쟁

이 미치지 않을 것 같던 산촌에 닥친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잔혹함을 다룬 오에는, 이 단계에서 전쟁을 다룬 전후문학자이자 도쿄대 불문과를 졸업(1959)한 20대 젊은 신진작가였다.

〈젊음의 패기〉 오에 씨의 작품 속에는 그 어느 것이건 넓은 의미에서의 깊이가 있다. 「사육」이 한 작품만 보아도 인간의 따뜻함과 냉혹함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파들어가면서 전쟁이란 참혹성을 배경에 끼고 어린이의 눈이 어른의 눈으로 점점 커져 인간을 응시하는 눈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테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작가는 그 테마의 속도를 그의 독특한 문장으로 십분 부조시키고 있다.

大江씨의 문장은 결코 매끄럽고 부드럽지가 않다.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적이기에 앞서 너무도 서구적이다. 하나의 사상을 표상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배열되는 수많은 이미지의 연결, 전연 상반되는 언어와 직결시킴으로서 정확하게 조성되는, 칼날같이 끊어지는 이미지, 「캄마」로만 이어가는 수많은 사상의 연속, 자칫하면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 정도의 문맥이다. 뿐만 아니라 대담하게 무시해버리다 시피하는 「텐스」는 오히려 외부적인 묘사에서 내부의 심리로 비약을 가져오는 효과를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길게 이어가다가 찝막하게 딱 끊어지는 그 문장의 기교도 비장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것은 마치 음악의 리듬과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大江 씨의 특유한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기에는 거의 ‘이미지가 없다’시피한 우리 언어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여튼 애써보기는 하였지만 끝내 놓고 나서도 나에게서는 아직도 자신이 안서 초조하기만 하다. 번역이라고 말을 붙이기가 죄스러운 지경임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sup>11)</sup>

10) 大江健三郎, 吳尙源 역, 「飼育」, 『日本戦後問題作品集』, 新丘文化社, 1963.9, 123-153면.

11) 백철 외 編, 계용목 외 역, 『日本戦後問題作品集』(1960), 新丘文化社, 1963, 367-398면.



이목을 끄는 것은 편집진의 평가다. 편집위원은 “大江씨는 「死者의 자랑」, 「사육」에서 그 이색적인 언어감각과 기묘한 작가眼으로써 주목을 끌고 있다”고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사육」의 번역자인 소설가 오상원은 번역의 불가능성을 토로했다. 문체를 중시한 오에는 60여 년에 걸쳐 창작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문장을 갈고 닦은 것으로 유명한 작가다. 번역자 오상원은 「사육」에서 작가의 특성을 간파했지만 한국어로 번역하는 한계를 자각하고 소설가로서 피로움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외국문학 수용은 번역 과정에서 문체적 특성이 상당부분 상실하는 번역불가능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독자는 번역이 시작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오에의 문체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소설의 내용만을 받아들인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을 접한 한국 독자는 문체와 별개로 「사육」을 흥미롭게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인이 바라본 미국인상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추락한 비행기의 조종사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동양인에게 낯선 서양인은 더욱 동물처럼 비취진다. 소설 제목 「사육」은 마치 가축을 돌보고 기르는 것처럼 흑인 병사를 지하창고에 가두고 보살피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음식을 날라주던 아이들과 흑인 병사가 조금씩 친해지면서 인간적인 유대를 맺게 되고 심지어 주인공 공적인 소년은 흑인 병사를 동무로 여긴다. 이 소설의 빼어난 점은 이 ‘사육’이 인종과 적군이라는 경계를 넘어 우정과 인간적 유대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흑인 병사와 소년의 유대는 순식간에 붕괴하고 만다. 현의 지시가 내려져 군이 흑인 병사를 데려갈 수 있도록 읍내까지 흑인 병사를 호송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소년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흑인 병사에게 달려가지만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떡이기만 한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마을 어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흑인 병사가 소년을 인질로 삼는 일이 벌어진다. 소년은 이 일로 병사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마을 어른들이

낮으로 병사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고 만다. 이 충격적인 체험을 통해 소년은 “나는 인젠 아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계시처럼 내 머릿속을 채웠”<sup>12)</sup>고 죽은 시체의 표정에 익숙한 마을 어른들처럼 잔혹한 세상에 익숙해진다. 이처럼 전쟁문학, 전후문학, 성장소설이자 미국인을 다룬 일본문학 「사육」은 전쟁의 잔혹함과 함께 인종이 다른 적국의 병사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이목을 끌 수 있었다.

여하튼 오에가 이 무렵 한국에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본국에서 유력한 상을 수상했기 때문이다. 외국문학의 위상, 작품 이해와 번역 수용은 본국 문단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는 게 일반적이다. 1960년대 중반 한국에서 오에는 일본의 저명한 상을 받은 젊은 작가에서 전후문학의 기수로 고평가 되어 갔다. 1964년 일본에서 한국 특파원을 만난 오에는 “일본 전후문학을 이끌어가는 반항적인 작가”로 소개된다. 그는 “자기의 세대는 전쟁을 겪지 않은 문자 그대로의 ‘전후의 산물’이며 자기는 노마 히로시, 시히나 린조 등과 더불어 일본 전후문학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불문학도였고 문체를 중시한 그는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한 “앙띠로망”이 소설의 기교면에서 큰 공헌을 한 것은 인정하나 자기로서는 사르트르가 말한 대로 ‘현대의 불안’은 차라리 카프카에게서 더 절실히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13)</sup> 여기서 오에가 누보 로망<sup>14)</sup>이 아니라 여전히 프랑스 실존주의에 뿌리를 둔 전후문학자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가 일본 문단에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1960년대 한국에서도 전집 붐과 일본문학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작품이 좀 더 알려지기 시작했다. 『일본문학신예작가수상작품 선집5』(1964)와 『전후일본단편문학전

12) 大江健三郎, 吳尙源 역, 「飼育」, 『日本戦後問題作品集』, 新丘文化社, 1963.9, 152면.

13) 「日本の大江健三郎 씨 戦後文學の 젊은旗手」, 『동아일보』, 1964.07.09, 5면.

14) 누보 로망에 대해서는 이행선, 「알랭 로브그리에(1922-2008)의 번역 수용과 누보 로망(Nouveau Roman) - 이어령, 박이문, 김현, 김치수, 하일지」, 『대동문화연구』 10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06.30, 519-556면 참조.

집5』(1965), 『일본수상문학집5』(1969)는 제목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인데, 이 책에는 「사육」과 함께 1950년대 단편소설인 「기묘한 작업」, 「死者의 奢侈」<sup>15)</sup>, 「不意의 병어리」가 번역돼 있다. 『일본대표작가백인집5』(1966)에는 「세븐틴」(1961), 『현대세계문학전집6』(1968)에는 「짓밟히는 싹들」이 실렸다. 당시 일본에서 오에는 대표작인 『개인적인 체험』(1964), 『만엔 원년의 풋볼』(1967), 르포 『히로시마 노트』(1965), 『오키나와 노트』(1970)를 통해 1960년대 대표 문학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장애아들 히카리의 출생을 체험화한 『개인적인 체험』을 기점으로 문학적 변신을 한 것을 감안하면, 1960년대 한국에서 오에는 여전히 사실상 1950년대 작가, 『개인적인 체험』 이전의 전후작가였다.

그럼에도 다수 선집과 전집에 소개되면서 작가의 내력과 작품의 성격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가령 『전후일본단편문학전집5』에서 오에가 1950년대 사르트르의 작품에 감동하고 나치 강제수용소 문헌의 충격적인 영향을 받아 “이 두 가지의 지표에 의지한 감금상태의 소설화”<sup>16)</sup>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한국인은 미군 점령하 일본인의 위축과 젊은 세대의 불안 심리,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책에는 유명 평론가인 에토 준(江藤淳)이 미군을 처음으로 대면한 시골 소년

15) 「死者의 奢侈」(1957.8)는 「기묘한 작업」처럼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용이다. 문학부에 다니는 대학생이 대학부속병원 해부용 시체를 처리하는 아르바이트 게시를 보고 의학부 사무실을 찾아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체를 새수조에 옮기는 작업(하루만)을 맡게 된다. 그는 시체처리실의 관리인 그리고 다른 여대생 1명과 일을 진행하는데 오후 6시 무렵 사무실에서 지시를 잘 못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래된 시체는 새수조에 옮길 필요 없이 시체운반차에 실어 시체소각장에서 소각해야 했다. 대학생 ‘나’는 초과 아르바이트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날 밤이 새도록 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작품이 끝난다. 소설 제목 「死者의 奢侈」란 작업 인부들이 시체를 운반차에 싣다가 떨어뜨리자 시체 처리실 관리인이 “소중히 취급해 주게” 하고 지적해서 인부들이 “홍 사치로운 송장이 로구나 이놈들” 하고 답변한 데서 기인했다. 大江健三郎, 李種烈 역, 「死者의 奢侈」, 『戰後日本短篇文學全集 5』, 日光出版社, 1965, 286-316면.

16) 開高健, 有吉佐和子, 大江健三郎, 金龍濟 外 譯, 『戰後日本短篇文學全集 5』, 日光出版社, 1965.9, 330-332면.

과 어른의 심리 변화를 관념적이면서도 이미지로 잘 형상화한 「사육」을 읽고 받은 충격과 감동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다. 장애아 출산을 다룬 『개인적인 체험』 이전 오에 작품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 기반이 해명되고 한국에도 소개된 것이다.

그리고 「사육」과 함께 실린 「기묘한 작업」(1957.5)<sup>17)</sup>도 ‘사육’과 관련된 작품이다. 이 단편은 대학생 ‘나’(20세)가 대학부속병원에서 1년여 동안 사육하던 개 150마리를 도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일을 다룬다. “근 일 년 간 거기서 사육되는 동안에 적의(敵意)를 일으키는 습관이 없어져 버린 듯이, 개는 온순했다.” 그런데 적의가 없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서로 다투어서 개성을 잃은 흐리멍덩한 우리를 일본의 학생. 그러나 나는 별로 정치적인 흥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나’는 친구들의 학생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별로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는 습관으로 되어 있었다.” 이처럼 ‘나’는 사회에 사육된 채 피로를 느끼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운동에 나서지 않는 존재다. 사육하던 개가 필요 없게 되자 방치하고 심지어 도살하도록 지시한 병원의 태도는 일본 사회 전체의 경향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한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여대생은 “개백정의 문화, 밀매음의 문화, 회사 중역의 문화, 추잡하고, 끈적거리는 것이 모두 같”다고 진단했다.

앞에서 살펴본 「사육」에서 ‘사육’이 흑인병사의 사육뿐만 아니라 전쟁과 살인에 익숙한 어른들의 세계에 익숙해지는 소년의 사육을 의미했다면, 「기묘한 작업」의 ‘사육’은 필요할 때는 사육하다가 냉혹하게 버리고 도살하는 일본사회의 문화 속에 반항하지 않고 젖어들면서도 심적으로 관조하고 반발하는 스무 살 대학생의 사육 의식의 통찰을 함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독자는 두 작품을 통해 기성사회에 접어드는 당대 일본 젊은이가 사회와 길항하는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17) 大江健三郎, 李種烈 역, 「奇妙한 作業」, 『戰後日本短篇文學全集 5』, 日光出版社, 1965, 273-285면.

것이다.

그리고 「不意의 병어리」(1958.9)<sup>18)</sup>는 「사육」처럼 산골짜기가 공간적 배경이고 소년이 핵심인물이다. 하지만 「사육」은 종전 이전이고 추락한 미군 흑인병사가 등장하는데, 「不意의 병어리」는 종전 직후이고 승전국인 미국의 백인병사가 등장한다. 「사육」이 마을 어른들이 소년을 인질로 삼은 흑인병사를 낮으로 살해하는 서사라면 「不意의 병어리」는 마을 어른들이 미군병사의 통역을 하는 일본인을 물속에 익사시킨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不意의 병어리」의 산골에 5명의 미군병사와 1명의 통역이 지프차를 타고 휴양을 와서 시냇가에서 몸을 씻었는데 일본인 통역의 구두가 사라지면서 촉발한다. 분노한 통역은 구두를 찾기 위해 집을 수색하고 소년의 아버지인 마을 동장을 문책한다. 통역이 잘 협조하지 않는 동장의 뺨을 때리자 동장은 자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병사의 오해를 사서 총격을 당하고 사망하고 만다. 이에 동장 아들인 소년은 그날 밤 지프차에서 자고 있는 통역을 시냇가로 유인하고 기다리던 어른들이 살해했다. 한국에서 해방 이후 통역은 부와 입신출세, 부패의 상징이었는데, 작가 오에는 돈 문제보다는 적국인 미군의 앞잡이가 된 통역을 향한 일본인의 거부감과 적개심을 가시화한 셈이다.

『일본대표작가백인집5』(1966)에서는 “若冠 30세로 신세대의 대표가 되었으며, 입신출세전의 주인공, 현대 학생기질의 一典型, 일본의 신헌법의 옹호자 등의 지대한 역할의 기대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문단에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sup>19)</sup>고 소개되어 있다. 수록된 「세븐틴」(1961.1)은 소설 제목처럼 주인공이 17세 소년이다. ‘나’는 관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좌익 지향의 17세였는데, 타인의 시

18) 大江健三郎, 李種烈 역, 「不意의 병어리」, 『戰後日本短篇文學全集 5』, 日光出版社, 1965.9, 317-329면.

19) 大江健三郎, 金元基, 趙能植 譯, 「Seventeen」, 『日本代表作家百人集 5』, 金素雲 外 編, 金東史 外 譯, 서울 : 希望出版社, 1966.11.20, 379면.

선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춘기의 고등학생이기도 했다. 못생긴 외모나 왜소한 체격, 낮은 학교 성적과 반에서 가장 떨어지는 체력 때문에 ‘나’는 한없이 자기혐오와 수치심에 휩싸여 있다. 그러던 중 같은 반의 신토호의 권유로 ‘우익 연설의 바람잡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황도와 사카키바라 구니히코가 공산당을 비난하며 외치는 “연설의 악의와 증오의 형용이 거의 나 자신의 내부의 목소리였다. 그건 바로 나의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들린다. 그러면서 평소 자기모멸과 자기혐오가 깊어지는 만큼 세상을 향한 증오와 적대가 커지던 ‘나’는 “이 현실 세계에 대하여 타인들에 대하여 적의와 증오를 새롭게 다졌다. 언제나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의 약점을 붙들고 자기혐오라는 진흙탕에 빠져 나만큼 혐오 받아 마땅한 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내면의 비평가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나는 상처를 앓는 심정으로 상처투성이의 전신을 더듬었다.”<sup>20)</sup> 이 충격적 체험을 겪고 난 후 ‘나’는 황도와 본부에서 입당 선거를 하고 당원이 되며 사카키바라를 통해 진정한 우익청년으로 거듭나게 된다. 한국 독자는 「세븐틴」을 통해서 전후에 일본에서 진보나 보수당원이 아니라 천황에 충성하는 ‘우익 당원 탄생’의 한 유형을 접하게 되었다.

작가 오에는 「기묘한 작업」의 대학생 ‘나’처럼 적극적인 학생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작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향을 표출했던 것이다. 오에는 「세븐틴」에 이어 「정치소년 죽다」(1961.2)를 통해 천황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우익단체의 협박을 받게 되는 데 이 소설은 1960년대 한국에 번역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에의 성격은 『現代世界文學全集6』(1968)에서 번역자 김세환의 「작가의 세계」와, 소설가 이호철의 「최근 일본문학의 동향」을 통해 정립된다. 전자에서 지방 출신의 오에는 「사육」처럼 산촌의 자연 등을 다루는 목가적인 작가였는데 “아쿠타가와상 수상을 계기로 현대 일본

20) 오에 겐자부로, 박승애 역, 「세븐틴」, 『(세계문학단편선21) 오에 겐자부로 - 사육 외 22편』, 현대문학, 2016, 236면.

청년의 고독과 불안'을 다루는 도회적 소설을 창작한다. “수상 이전에는 방황하지 않고 감금된 상태 속에 침잠된 내면”을 다루었다면, 수상 이후 ‘불안과 자기상실에 휩싸인 젊은 세대의 자기회복과 자기처벌’이 소설의 주제가 된다. 그리고 소설가 이호철은 우선 문단 내 오에의 위치를 명확히 했다. 그에 따르면 “패전 이후 다자이 오사무 등 신인군이 등장, 이후 곧 아베 고보 등이 뒤를 잇고, 제3차 신인군이라고 불리는 石原愼太郎, 開高健, 大江健三郎”가 일본문학의 계보다. 또한 당시 번역 안 된 『만엔 원년의 풋볼』을 일본어책으로 읽은 이호철은 “작가의 투철한 역사의식”을 확인한다. 그는 오에가 “여전히 조잡성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일급의 작가와 일급의 모랄리스트가 같은 몸 속에 깃들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당대 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주목되는 작가”라고 평가했다.<sup>21)</sup> 이호철은 뒤이어 신문에 오에를 미시마 유키오와 대비하여 좌파적 현실참여 작가로 규정하기도 했다.<sup>22)</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60년 4·19혁명 이래 일본문학의 수용이 재개되면서 오에의 작품도 다양한 전집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대표작인 『개인적인 체험』과 『만엔 원년의 풋볼』이 번역되지 않았고, 장애아들 히카리의 출생과 영향이 전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에의 수용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인 체험』(1964) 이전, 초기작으로 한정되었다. 일본 내 사회 활동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성향도 단편적인 정보에 그쳤다. 1960년대 번역 수용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후 오에의 첫 방한(1990년)까지 앞서 언급한 그의 대표 장편소설 2편, 르포 2편이 번역되지 않았고 다른 작품도 사실상 거의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新丘文化社 編, 『現代世界文學全集6』, 서울 : 新丘文化社, 1968.3.30, 405-427면.

22) “현재 일본의 작가 교수 등 지식계급의 현실참여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大勢(대세)를 이루는 주류가 大江健三郎 등으로 대표되는 좌파세력. 原爆반대 중공과의 외교 노동투쟁 등 범사회적 문제를 들고 나와 식자연하는 일본 인텔리의 속물주의에 혐오를 느끼고 반기를 든 유일한 사람이 미시마였다.” 「너무나 日本的 작가 이호철」, 『경향신문』, 1970.11.27, 5면.

1970년대 『현대일본대표문학전집5』(1974)는 그 이전 『전후일본단편문학전집5』(1965)와 제목만 달랐다. 『일본문학대전집』(1975, 1978)에도<sup>23)</sup> 고미카와 준페이, 미시마 유키오,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이 실렸지만 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976년 『외침소리』가 번역되었으나 1963년 초기작품이며 역자 해설도 없다. 1980년대에는 1976년 번역된 『외침소리』가 제목만 『한밤의 속삭임』(1982)으로 바뀌 간행되었다. 1982년에는 『성적 인간』(1982, 1983, 1988 간행)이<sup>24)</sup> 소설가 이호철의 번역에 의해 출간되었는데 그 역시 1963년 작품이다. 그 외 1984년 『현대의 세계문학3』에 「일상생활의 모험」이<sup>25)</sup> 번역되었을 뿐이다. 1981·1986년 『일본대표문학전집』은 『일본문학대전집』(1975)의 제목만 바꿨기 때문에 오에는 역시 없다.

1970-1980년대 오에 작품의 번역 현상은 한국에서의 일본문학의 흐름과 일부 상통한다. 1968년 이후 일본문학에 대한 관심이 급감하고 1970년대 접어들어 일본 본격문학의 번역이 위축되며 본격적으로 대중소설이 유입된다. 『외침소리』<sup>26)</sup>, 『성적 인간』, 『일상생활의 모험』도 성적인 내용의 소설이다. 『성적 인간』의 남색가 주인공은 자기징계 충동에서 자학적으로 치한을 택하면서 현실 생활 복귀에 실패한다. 『일상생활의 모험』에도 반사회적 섹스가 서사화 된다. 초기 소설에 성적인 것을 도입한 오에

23) 동서문화사 편, 『日本文學大全集』1-9, 동서문화사, 1975.

24) 오에 겐자부로, 이호철 역, 「성적 인간」, 『오늘의 세계문학9 - 사랑의 목마름, 잔치가 끝나고, 성적 인간』, 이원섭 외 역, 중앙일보사, 1982.

25) 오에 겐자부로, 이범열 역, 「일상생활의 모험」, 『현대의 세계문학30 - 돈황, 침묵, 일상생활의 모험』, 범한출판사, 1984.

26) “한마디로 처절한 성적 소설이다. 현대가 내포하고 있는 적실한 청춘의 문제를 섹스와 결부시켜서 추구해 들어간 중량 있는 작품인데 특히 섹스의 도작자, 변태자들을 통해 잔혹할 만큼 학대를 가하는 의도는 겉으로 활기에는 자극적인 성소설이지만 내면은 사회와 인생의 부조리한 굴레 속에서 청춘(즉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다)의 탈출구를 찾을 길이 없어 자학으로 흐르는 인간의 심오한 문제를 추구하고 있어 芥川賞 수상작가의 구슬보다 찬란한 眞價가 반짝이고 있다.” 오에 겐자부로, 임현 역, 『외침소리』, 동남문화사, 1976, 1면; 大江健三郎, 『한밤의 속삭임』, 대흥출판사, 1982.



의 문학이 저속한 일본소설로 폄하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번역 수용되는 것은 당대 한국의 일본문학 소비 경향과 맞물린 셈이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도 오에 문학에 대한 한국 독자 이해는 '1960년대 일본문학의 동향과 『성적 인간』의 해설'을 쓴 이호철의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정치사회적 활동 상황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일상생활의 모험』은 주인공 '나'가 3살 연하 친구인 사이키 사이키치의 행적과 추억을 밝히는 장편소설이다. 사이키치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모험을 감행하는 자유분방하고 저항적 인물이다. 그를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요소도 개입되는 것이며 재일조선인 권투선수 김태<sup>27)</sup>라는 부수적 인물도 삽입된다. 이목을 끄는 점은 주인공 '나'가 1950년대 중후반과 1960년대 초반 소설가 오에와 동일 인물격으로 설정되어 있다.<sup>28)</sup> 오에를 연상케 하는 소설가 '나'가 모든 모험을 포기한 채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과 사람으로 빠져들 때면 사이키치가 등장해 다시 모험심을 자극한다. 즉 이 소설은 직접 행동으로 일상 속 모험을 감행하는 사이키치와,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상의 모험을 시도하는 소설가 '나'의 서사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독자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 오에의 소설가로서의 자의식을 일부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의 모험』은 1964년에 출간된 작품이다. 정리하면

27) 김태는 사이키치의 친구다. 어린 시절 사이키치는 김태와 권투시합을 해서 KO패 당했다. 그 경기가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친구가 된다. 김태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억압에서 탈출하기 위해 권투선수가 됐다.

28) 가령, 이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그러나 몇 개월 전에 내가 발표했던 정치적인 잔혹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 속에 분노의 머섯을 번식시키고 있었다. 나는 밤낮으로 협박전화와 편지를 받게 되었다. 나는 무거운 고독에 잠겼으며, 일종의 노이로제에 걸려서 소설도 수필도 쓰지 않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 주인공 '나'가 발표한 작품이란 오에 겐자부리가 1961년 발표한 「세븐틴」과 「정치소년 죽다」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오에 겐자부리가 1950년대 중후반 소설가 지망생에서 소설가가 되고 1960년대 초반 작품을 쓰며 겪는 고뇌와 사이키치의 서사를 절합하여 구성된 것이다. 오에 겐자부로, 정영표 역, 『일상생활의 모험』, 하문사, 1994.10.27, 75면.

1970-1980년대 오에 겐자부로는 1960년대 전후의 초기 작품이 알려진 정도의 잊힌 전후작가였다. 이 시기 한국에서 일본문학자로서 그의 존재감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 3. 노벨상 수상(1994)과 방한, 번역의 본격화

1990년대 오에 겐자부로는 1990년 1차 방한, 1995년 2차 방한을 했다. 1차 방한은 한국측 초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번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그 내막도 2차 방문 때 알려졌다. 2차 방한은 크리스천아카데미와 일본 이와나미 서점이 공동주최한 <제1회 한일 지성 심포지엄 - '해방 50년, 패전 50년 화해와 미래를'>에 공식 초청되면서 이루어졌다. 제목의 '지성'이 함의하듯 오에 겐자부로는 일본을 대표하는 '지성'의 자격으로 방문했다. 1990년대 초까지도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던 작가가 일약 대표 지식인이 되어 등장했다. 이 배경에는 1994년 10월 13일 오에의 노벨문학상 선정이 있다. 노벨상 수상으로 오에는 일본과 세계를 대표하는 문학 거장으로서 호명되며 '지성인'이 된 셈이다.

한국에서 오에 겐자부호가 크게 주목을 끈 것은 노벨문학상의 열망이 강한 한국적 풍토와 정서도 있지만 당시 국제적 정세와 한일 관계도 핵심 요인이었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공개증언 했고, 1992년 일본 평화유지활동(PKO)법안 제정과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공식화 되었다. 한반도에서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전쟁 직전의 '북핵 위기'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핵을 개발해 일본을 응징하는 내용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와 한일간 감정 갈등을 고조시킨 『일본은 없다』(1994)가 초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추한 한국인』(1993) 논쟁도 있었다.<sup>29)</sup>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조선총독부

건물의 해체를 지시(1993.8)했고<sup>30)</sup> 일본의 역사 망언과 관련해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는 발언(1995)을 해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미 1992년 황영조가 일본 선수를 제치고 마라톤 우승을 하면서 일본을 놀렸다는 ‘극일(克日) 열기가 일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일부 한국인의 자의적인 문화적 우월감의 자부심을 잃게 하는<sup>31)</sup> 충격이었다.

【동경=황우연 특과원】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일본 작가 오에 겐자부로(대강건삼남·59)의 도쿄(동경) 세타가야(세전곡)구 자택에 오에의 일본 문화훈장 거부를 비난하는 편지가 쏟아지는가 하면 우익단체 대표들이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상 협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비난편지는 문화훈장을 거부한 지난달 15일 이후부터 하루 2~3통 꼴로 지금까지 50통을 넘어서었다. 경시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비를 띄고 있는데 오에는 “비난은 각오한 것이다. 언론에 의한 비난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하겠다.”고 말했다.<sup>32)</sup>

더 놀라운 것은 노벨상 선정 다음날인 14일 오에가 일본 정부의 문화

29)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선, 양아람, 『『추악한 미국인』(1958)의 번역과 동아시아의 추악한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1993) - 혐오와 민족성, 민족문화론』, 『한국학연구』 4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2, 315-350면; 표정훈, 『대한민국이 읽은 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8, 176-190면 참조.

30) 1995년 제1회 한일 심포에 오에 겐자부로와 함께 동행한 이와나미 서점 사장 야스에 료스케는 “구조선 총독부의 건물. 이 악명 높은 당당한 서양 건물의 건축 방식을 실제로 보았을 때 심한 혐오와 부끄러움 감정에 젖어들었다.”고 고백했다. 야스에 료스케, 지명관 역, 『칼럼으로 본 일본사회』, 소화, 2000, 274면.

31) “이웃의 경사는 곧 우리와 문학을 돌아보는 계기도 된다. 며칠새 克日됨에 도취되었던 우리를 흔들어 깨운 뉴스다. 황영조가 마라톤에서 일본을 누르고 우승했다. 축구도 우즈베크에 졌지만 일본을 꺾은 것만으로도 우승이상이라고 들떴었다. 노벨상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우월감, 수천 년 동안 물 건너 나라보다는 앞섰었다는 자부심이 빛을 잃는다.” 「횡설수설」, 『동아일보』, 1994.10.15, 1면.

32) 「일왕수여 문화훈장 거부/노벨상 오에 협박 시달려」, 『경향신문』, 1994.11.11.

훈장을 받지 않겠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다.<sup>33)</sup> 그는 “나는 전후 민주주의자이므로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는 권위와 가치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천황이 수여하는 문화훈장과 문화공로상을 거부했다. 고향인 에히메현의 공로상은 세금으로 주는 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노벨상은 받고 자국의 상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에 불만을 품은 일본인과 우익 성향의 단체 회원들이 오에를 규탄하는 시위와 협박을 했다.<sup>34)</sup> 그러면서 오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각인되어 갔다. 오에가 진보적이고 비판적 지식인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수상 소감에서 ‘전후민주주의자’인 그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은 현대문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생각할 것”이라고<sup>35)</sup> 언급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시상식 참석차 스톡홀름에 도착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특히 아시아인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오늘날까지도 나는 우리가 2차 대전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고 또 전쟁 중 우리의 행위에

33) 「노벨문학상 수상한 오에/일본 문화훈장 거부 파문」, 『한겨레』, 1994.10.16.

34) 당시 일본에 있었던 번역가 권남희에 따르면, “일본에서 9번째 노벨상 수상자. 일본메스컴은 한참 오에 겐자부로 씨로 떠들썩했다. 뉴스 시간이나 와이드쇼 시간이나 온통 오에 겐자부로 씨의 문학과 사생활에 대한 보도로 시간을 할애했다. ... 이후 한동안 그의 작품은 나오자마자 품귀 현상을 빚었다. 그러나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르자 그 열기는 차츰 식어 서점 제일 앞에 설치되었던 노벨상 수상자의 특별 코너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꾸준히 팔리고는 있다고 한다) 순수문학 잘 팔리지 않음. ... 노벨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식어갈 무렵, 오에 겐자부로 씨의 이름이 다시 메스컴에 떠올랐다. 이유는 그가 문화훈장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일본 최고의 명예인 그 훈장을 거부하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런 의미 없는 썩은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동안 길거리의 전신주에 애국당이라는 우익단체에서 이런 인쇄물을 붙여 놓았다. ‘문화훈장 거부한 오에 겐자부로 규탄’) 그의 문화훈장 거부를 불씨로 메스컴에서도 문화훈장 폐지론에 대해서 떠들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권남희, 『동경신혼일기』, 서울 : 무당미디어, 1996.5, 114-116면.

35) 「피폭문제, 끝없는 나의 문학적 주제/일서 두 번째... 작가 수상소감」, 『국민일보』, 1994.10.14.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36)</sup>고 말해 굳어졌다. 수상 연설에서도 과거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부전(不戰)을 지탱하는 헌법의 중요성을 환기했다.<sup>37)</sup>

이처럼 1960년대 이래 수십 년에 걸친 오에의 일본의 삶이 상세히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에는 노벨상 수상과 훈장 거부, 수상 연설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다. 이때 그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황석영의 석방을 건의하기도 했다.<sup>38)</sup> 이는 한일 국교정상화 30년 만에 세계적 보편성을 인정 받은 문학자이자 우익이 아닌 전후민주주의자이며 친한파 지식인이 될 수 있는 진보적 태도의 일본 ‘지성인’의 등장이었다.

1995년 <제1회 한일 지성 심포지엄 - ‘해방 50년, 패전 50년 화해와 미래를’>에서는 냉전 체제 붕괴 이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본의 사죄와 역사적 화해 및 갈등 해소’가 주된 화두였다.<sup>39)</sup> 이때 오에는 과거 1990년에 NHK방송의 ‘세계는 히로시마를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기획프로그램 취재차 한국으로 건너와 김지하 시인을 만났다고 밝힌다. 그는 1975년 김지하가 투옥 중일 때 일본에서 석방운동을 했다. 그런데 대면한 김지하가 “일본은 세계가 히로시마를 기

36) 「노벨문학상 작가 오에/ “일 전쟁책임 배상해야”」, 『한겨레』, 1994.12.6.

37) 「오에 노벨문학상 수상연설 요지」, 『한겨레』, 1994.12.9. 오에의 수상 연설 「애매한 일본의 나」는 일본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연설 「아름다운 일본의 나」와 비견되어 오랫동안 운위되었다. “양가적 애매함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 근대 서양문명과 국가관을 겨냥해 일직선으로 달려오는 과정에서 전통적 생활감각 사이에서 벌어진 갖가지 요소들의 대립이 양가적 애매함의 근거라는 것” (김윤식, 『영거주춤 문학의 표정』, 솔출판사, 2010, 13-14면) 그러나 근대 문명의 발전과 그와 모순되는 ‘전통’이 공존하는 상태는 서구 나라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스키 사다미, 정재정·김병진 역, 『일본의 문화 내셔널리즘』, 서울 : 小花, 2008, 269면.

38) 제1회 포럼차 한국을 방문한 오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황석영의 석방을 건의했다. 이때 오에는 황석영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나를 위로하는 말과 함께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아시아가 새로운 세기에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그는 썼다.” 황석영, 『수인1』, 문학동네, 2017, 256면.

39) 「크리스찬아카데미·이와나미서점 공동주최 한·일 심포지엄」, 『한겨레』, 1995.02.02.

억하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일본 스스로가 난징 대학살과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sup>40)</sup>이라고 비판해서 오에는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1995년 김지하와 다시 만난 오에는 김지하 덕분에 역사적 시야를 넓히고 일본의 작가가 아니라 ‘아시아의 작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sup>41)</sup>

하지만 ‘아시아의 작가’ 오에가 호평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전후민주주의를 외치는 상당수의 반전·평화주의자가 실제로는 ‘전쟁과 식민지배의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sup>42)</sup> 헌법 수호와 반전·반핵을 외치는 전후민주주의자도 민족과 국경을 넘는 성찰에 이르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오에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마자 한국에서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부정적 조선인상을 문제 삼았다.<sup>43)</sup>

나의 작품이 한국어로 번역돼 계속 출판되고 있는 지금 어느 신문은 내 작품이 반한국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1967년에 쓴 「만연 원년의 풋볼」의 경우는 소년시절부터 청년시절에 걸친 나의 경험이 축적된 한국인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우연히 하나의 작은 생활권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과 일본인들과의 관계를 일본인 쪽에서 가

40) 「두 번째 한국 온 일 노벨상작가 오에 겐자부로」, 『한겨레』, 1995.02.02, 5면.

41) 김지하, 『님』, 솔출판사, 1995, 112-116면.

42) ‘책임 없는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하야시 히로후미, 현대일본사회연구회 역,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논형, 2012 참조.

43) “‘늦게 온 청년’에서 조선인을 강도·강간·살인자로 묘사. 한국 팬클럽이 추천한 원로 서정주 씨를 제치고 그가 수상했다는 데서 의외라는 것은 아니다. ... 오에 자신이 픽션적인 자서전이라고 한 그의 장편 『늦게 온 청년』(1962)의 도처에 표출하고 있는 반조선인 감정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 때문이다. 강도·강간·살인(충격)·주정 등의 악행은 조선인에게 배역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일 교포들이 일본에 이주하여 고생하고 있는 과거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비록 허구일지라도 인물 설정의 편견을 의아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또 스웨덴 한림원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을 읽었는지 읽고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권과 양심의 차원에서도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덕수 팬클럽 한국본부회장, 「노벨상 수상 오에 겐자부로 “반한 편견주의자”」, 『서울신문』, 1994.10.27.

능한 한 깊고 다양하게 표현하려 했던 것인데 반한 감정과는 다른 방향에서 읽히기를 바란다.<sup>44)</sup>

이 사실을 접한 오에는 1회 심포 석상에서 자신의 작품이 반한국적이지 않다고 변호해야 했다. 당시 1995년부터 출판사 고려원에서 오에 전집 출간을 시작했다.<sup>45)</sup> 오에는 이 전집 시리즈의 머리말에 “저의 초기 작품에 반한(反韓) 감정이 보인다는 비판이 서울의 신문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비판을 괴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제가 그런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고, 더욱이 그것을 표현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제 작품이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리, 소개됩니다. 작품 자체에서 제가 진정으로 느끼고 생각해 온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sup>46)</sup>라고 애매한 해명을 하고 있다.

오에가 1950~1960년대 작가 활동을 할 때 독자는 한국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국제관계가 다변화되면서 국가간 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번역이 더욱 빈번해지는 ‘국제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일본 독자만을 상상했던 일본인 작가가 이제 인접국가 시민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게다가 그 이웃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은 한국이었다. ‘전후민주주의자’를 표방한 문학자의 민족차별 의식이 검증될 수밖에 없었다. 국제적인 문학상을 받고 대표적인 평화주의자로 부상한 오에에게 외국 독자의 불쾌감은 곤혹스러웠다. 세계적인 상을 받아 문학적으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자부했는데 그 보편성과 상징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는 오해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

오에의 진정성을 향한 의심과 비판은 일본으로부터도 전해졌다. 양심

44) 「현대문명의 과제·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동아일보』, 1995.02.02, 14면.

45) 고려원 오에 전집 편집위원 : 김윤식(문학평론가, 서울대 국문과 교수), 김춘미(고려대 일문과 교수), 최재철(한국외대 일본어과 교수)

46) 오에 겐자부로, 오상현 역, 『구세주의 수난』, 고려원, 1995.2, 128면.

적 저널리스트 혼다 가즈이치가 오에의 이중적 처세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에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반대활동을 하던 베평련(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의 약자를 공격하는 『주간 신초』, 1980년대 일본 최고의 반평화, 전쟁추진, 반반핵운동을 하는 『문예춘추』에 책을 내고 심사위원을 하며 협력한 행위를 용납하지 못했다.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고 정작 운동하는 친구들을 공격하는 회사에 협력’하는 오에는 “기회주의자”로 간주되었다. 혼다에게 오에의 행동은 과거 전시 중 전쟁협력한 일본 지식인과 동일했다. 오에가 노벨상을 받고 훈장은 거부한 것도 쟁점이었다. 혼다는 하노이 대학살의 키신저와 베트남 전쟁을 지지한 자민당 총재 사토 에이사쿠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노벨상이 언어적·문화적으로는 ‘인종차별상’이고 평화에 관해서는 ‘침략상’”이라고 평가했다. 오에가 사숙한 사르트르가 노벨상을 거부한 예도 거론됐다. “노벨상이 반평화상이고 바보스런 삼류상인지 오래전에 증명”되었다고 주장한 혼다는, “체제와 반체제 양쪽에 잘 보이는 오에의 처세술”을 격하했다. 또한 한국의 번역자도 오에가 1990년 김지하의 지적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전후민주주의 세대로서 아시아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가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며 의아해했다.<sup>47)</sup>

이러한 ‘소소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에는 미디어를 통해 일본의 참회를 역설한 비판적 지식인으로 인식되었다. 그 ‘권위’를 배경으로 노벨상 특수를 노린 한국 출판사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1994년 10월 13일 노벨문학상이 발표되자 다수 출판사에서 2달 동안 저작권 협의 없이 10종이 넘는 책을 간행했다. 하지만 1995년 1월 무역거래의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WTO가 출범하고 저작권보호 국제규약인 ‘문학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발효(1996.8.21)를 앞두고 협약 이행을 위한 개정저작

47) 혼다 가즈이치(本多勝一), 양역관 편역, 『오에 겐자부로 : 일본형 지식인의 빈곤한 정신』, 서울 : 하소, 1995, 7-134면.



권법이 1995년 12월 한국 국회를 통과하는 국면이었다.<sup>48)</sup> 이를 대비해 출판사 고려원이 1995년 초 오에 겐자부로와 전작 계약을 독점으로 체결했다.<sup>49)</sup> 1995년부터 시작된 고려원의 전집 번역은 1997년 2월까지 전체 24권 중 13권이 완결되었다.

오에가 노벨문학상을 받기 전 한국에서 일본문학은 대중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가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상실의 시대』의 인기는 한국 작가의 모방과 표절이 문제가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정통’ 순수문학의 쇠락으로도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오에 문학의 국제적 인정은 일본 순수문학의 재조명과 균형 잡힌 일본문학 수용, ‘일본 바로 알기’의 필요성을 야기했다. 웅진출판에서 ‘20세기 일문학의 발견’ 시리즈를 기획해 처음으로 12권의 일본 현대소설 문학전집을 간행했다. 고려원은 오에 전집 외에도 1996년부터 3권의 『일본대표단편선』을 냈으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는 ‘일본학총서’에 이어 1997년부터 한림신서 일본현대문학대표작선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일본 순수문학, 근현대 대표작가 작품집 외에도 무라카미와 같은 30~40대 신세대 대중작가, 여성작가 바나나 등 광범위한 번역이 이루어진다. 이중에서도 무라카미 하루키로 대표되는 젊은 작가의 작품이 한국 대중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1990년대 중후반 일본문학 붐을 이끌었다.<sup>50)</sup>

이처럼 일본문학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오에 소설을 향한 한국인의 관심은 1995년을 넘지 못했다. 전작 계약을 한 고려원이 경영난을 겪다가 1997년 4월 부도를 맞아 출간이 중단되었다. 단기간에 많은 작품의 발간 계획 탓에 대학원생까지 동원되어 번역의 수준도 담보하기 어려웠다. 더

48) 「출판계 내년 7월 UR저작권 발효 앞두고 ‘비상」, 『한겨레』, 1995.01.25.

49) 「해외유명작가 계약러시/내년 발효 저작권보호 「배른협약」 앞두고」, 『한국일보』, 1995.03.09.

50) 「일본 대표명저 12권 나왔다」, 『서울신문』, 1996.5.28; 「일본문학 국내번역출판 붐」, 『매일신문』, 1996.8.7; 일본문학 바로 알기 출판계에 바람술술」, 『한겨레』, 1996.8.23; 「독서계 새 패션 일본소설」, 『문화일보』, 1997.8.13.

큰 문제는 애초에 오에의 소설과 문장이 난해하여 대중성이 없었고 내용도 한국 독자의 감수성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일본에서도 이미 1970년대 접어들면서 감수성이 바뀐 젊은이의 외면을 받았다. 오에의 “초기 단편은 전후 10년 정도의 청년의 내면을 선명하게 형상화”하여 당대 일본 청년의 감성을 충족시켰다.<sup>51)</sup> 오에는 『개인적인 체험』, 『만엔 원년의 풋볼』의 작가로서 1960년대를 대표하는 문학자였지만,<sup>52)</sup> 그에 공감한 당대 일본인 젊은이의 감성은 전후 10년 일본의 폐색감을 느끼게 해주는 20대 작가 오에의 감수성과 공명했다. 오히려 1960년대 전공투의 정신적 공허함을 대변하는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였다. ‘상실감은 있으나 우울비탄의 정조가 없는 하루키의 감성’은 1980년대 운동권과 민주화를 겪은 한국 청년의 정서와도 충돌하지 않고 ‘무국적인 감수성’으로 호명되어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하루키 현상’이 지배적이었던 한국에서 오에 겐자부로는 패전 이후 10년의 전후의 상처를 드러내는 ‘국적 있는 감수성’의 전후작가였다. 오에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소개되기 시작할 때 이미 한국에서는 일본문학 소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오에는 노벨상을 받으면서 새로운 작법의 창출을 위해 3-5년간 집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여 독자는 후속작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요컨대 오에는 1994년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sup>53)</sup>

51) 와타나베 히로시, 서은혜 역, 『오오에 겐자부로오』(1973, 1994),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171-172면; 또한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오에의 초기 작품을 두고 “우리들은 거기에 그려진 세계가 우리들이 아는 일본의 현실을 지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선한, 마치 이방인의 눈의 필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서구적이라고 말할 만한 세계가 되어 있는 것에 놀랐다.”고 토론했다. 大江健三郎, 『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 講談社, 2018.1, 470면.

52) 『오늘의 일본문학』에서 1960년대 작가로 배치된 오에의 작품 성격은 ‘정치와 성, 핵시대, ‘근거지로서의 골짜기 마을’의 주제로 나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오에 문학에 대한 주류적 관점이다. 도미오카 고이치로 외, 김경원송태욱 역, 『오늘의 일본 문학』, 웅진지식하우스, 2011.12, 62-73면.

53) 오에 겐자부로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국제화의 필요성과 번역 인프라 구축의 중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높였지만 사실상 독자층이 부재한 일본문학의 ‘고전’이 되어 버렸다. 과거 1960년대에는 미시마 유키오와 대비되던 오에가 1990년대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와 비견되었을 뿐이다. 1990년대 대다수 한국인에게 옛 과거인 ‘패전 이후 10년의 일본의 혼란과 젊은 세대’의 감각은 더 이상 매력적인 관심 분야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지성’이 된 그는 ‘아시아의 지식인’으로의 자기캐신을 강요받게 되었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 4. 문학자에서 시대의 지식인, 운동가로

1998년 10월 한국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선언되고, 일본에서 2001년 영화 <쉬리>의 흥행,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가 많은 인기를 모으면서 일본인의 한국에 관한 관심이 비등해지기 시작했다. 오에 겐자부로는 2001년 4월 3차, 2005년 4차, 2006년 5차 방한이 있었고, 2010년대에는 2015년 6번째로 한국에 왔다. 3차 방문은 ‘문학의 밤’ 행사에서 책 낭독을 위한 발걸음이어서 그의 내한을 모르는 한국인이 대다수였다. 오에 자신도 2015년 5월 ‘제2회 서울 국제문학포럼’ 참가를 위해 4번째로 왔을 때 1995년 이후 10년만의 방한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1995년, 2005년, 2015년의 간극이 보여주듯 오에는 해방 50주년, 60주년, 70주년의 해에 10년 간격으로 한국을 다녀간 셈이다.

2005년 5월 24-26일은 ‘제2차 서울국제문학포럼’(대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의 기조강연, 한양대와 교보문고 강의 일정이었고 2006년 5월 18-19일은 고려대 문과대 60주년 기념 강연, ‘동아시아의 평화비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김우창과의 대담이 있었다. 2015년 3월

---

요성을 강하게 환기했다. 이에 따라 1996년 ‘문학의 해’에는 <한국문학번역금고>가 설립되어 해외에 한국문학을 알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2~13일은 연세대 130주년 기념 ‘연세-김대중 세계미래포럼’과 소설 『의사』의 출간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1990년대 오에는 노벨문학상 작가였고 일본 내 정치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그의 정치적 발언과 행적이 한국에 자주 보도되고 있었다. 문학자보다는 지식인의 면모가 부각된 시기였다.

일례로 2001년 3월 16일 오에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검정 불합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5년 4월, 문부과학성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집필한 교과서의 개정판 사용을 허가하면서 과거사 왜곡에 대한 주변국의 분노가 다시 한 번 들끓었다.<sup>54)</sup>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만드는 모임’의 이데올로기를 ‘쇄국의 정신’이라고 규정했다. 객관적 논쟁에 질 수밖에 없으니 날로 폐쇄적으로 되고 마침내는 공격적인 정신구조를 낳는다는 진단이다.”<sup>55)</sup> 교과서 파동에 이어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헌법 개정 움직임을 크게 우려한 오에는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2004년 6월 오다 마코토<sup>56)</sup>, 가토 슈이치 등과 함께 ‘헌법9조회’를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서울국제문학포럼에 초청된 그는 기조강연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일본의 우경화 추세를 비판하고 헌법이 개정된다면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어 아시아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고려대 특강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었다.<sup>57)</sup> 이러한 기조는 고이즈미에서 아베 정권

54)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212-215면; 「노벨문학상 받은 오에 겐자부로, ‘우익 교과서 채택’ 비판, 『서울신문』, 2001.8.9.

55) 「과장 새 日역사교과서, (상)일본의 역사인식, 『한국일보』, 2001.4.4.

56) 오다 마코토에 대해서는 이행선, 「오다 마코토(1932-2007)의 번역 수용과 한·일 시민연대의 기억, 『아세아연구』 63권 3호(통권18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0.09, 109-137면 참조.

57) 「오에 겐자부로 高大 강연서 신사참배 비판/ "고이즈미, 승고한 일에 마음의 자유 쓰길", 『한국일보』, 2006.5.18.

으로만 바뀌었을 뿐 2015년 3월 12일 6차 방한 때도 그대로 이어졌다. 게다가 2005년 7월에는 오키나와 ‘집단사’와 관련해 당시 수비대장과 유족들이 『오키나와 노트』의 저자 오에 겐자부로와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다.<sup>58)</sup> 이 무렵 그는 역사분쟁 하에서 법적 다툼을 하는 진보적 지식인이었다.

2010년대 6차 방문(2015) 이전에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있었다. 『히로시마 노트』의 저자 오에 겐자부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행동’에 가담하였으며<sup>59)</sup> 탈원전 서명, 집회 등 다양한 탈원전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2015년 3월 13일 장편 『익사』의 한국 출간기자회견에서 절필을 선언하고 실천적 행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원전사고의 여파였다. 당시 현실적으로 자위대와 군비가 확대되고 있고 2006년 자민당과 문부과학성에 의해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sup>60)</sup> 2014년 아베 정권이 ‘해석 개헌’을 결행하고 있었다. 전쟁 포기와 전력(戰力) 보유 금지, 국가의 교전권 부인을 주요 내용으로 한 ‘헌법 9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 상황이다. 오에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했다.<sup>61)</sup> ‘헌법 9조’ 수호자였던 그는 이제 반핵, 탈원전 운동가로서 남은 생의 힘을 쏟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련의 발언과 직접행동으로 인해 이미 2005년 무렵 한국에서 오에는 다음과 같이 인식되었다. “1970년대 김지하 시인에 대한 군사정권의 탄압에 항의해 단식투쟁에 참여하기도 했던 오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당시 일왕이 수여한 상을 거부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있다.”<sup>62)</sup> 그는 한일관계를 함께 논할 수 있는 일본 지식계

58) 「노벨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 피소」, 『서울신문』, 2005.7.25.

59) 「원전 필요 없다」 도쿄서 6만 명 집회」, 『경향신문』, 2011.9.19.

60) “개정안은 <애국심>과 <문화전통>을 중심 과제로 하고 있다.” 오에 겐자부로, 채숙향 역, 『말하고 생각한다 쓰고 생각한다』(2004), 지식여행, 2005.7, 272-273면.

61) “헌법 제9조란 유명무실하다고 할까” 오에 겐자부로, 「나의 문학과 지난 60년」(2006년 고려대 특강), 『日本研究』 第7輯,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2007.8, 15면.

의 원로이자 동시대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에의 민족차별 의식과 조선인관, 지식인의 진정성이 의심받던 1995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노년의 작가가 지식인으로서 사회참여를 활발히 하면서 젊은 시절의 작품과 인식에 대한 의구심이 불식되는 국면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일 양국을 넘나드는 오에의 비판적인 정치적 행보는 오히려 일본에 감정이 좋지 않은 주변국(민)을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일부 있었다.<sup>63)</sup> 일본 지식인의 한국 방문과 문화교류가 미약하지만 민간 문화외교의 기능을 한 것이다.

이처럼 오에가 작가를 넘어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는 동안 한국에서 그의 출판 현황은 어떠했는가. 1997년 고려원의 부도로 전집 발간이 중단되었고 일문학자 박유하의 2000년 번역판 『만엔 원년의 풋볼』도 곧 절판되었다. 2000년 전후 한국에서는 에쿠니 가오리나 요시모토 바나나 등 여성작가의 작품이 한창 유행이었다. 오에의 텍스트는 그의 4차 방한 무렵인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소개되기 시작했다. 출판사와 번역자는 과거 오에 전집 출간 기획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사선택의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선정된 오에의 텍스트는 ‘문학 작품, 문학자서전, (강연·대담 포함) 에세이’로 구분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은 1997년 친한 친구 이타미 주조의 자살을 계기로 다시 시작된 집필의 결과물인 장편3부작을 비롯해 『익사』와 같은 최근 문학작품과 기존의 대표적 장편소설(『개인적인 체험』, 『만엔 원년의 풋볼』 등), 그리고 정선된 단편소설집이 있다. 자신의 창작의 내막을 밝힌 문학자서전은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하다』 등이 핵심이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 원로 지식인이자 전후민주주의자의 식견을 한국에

62) 『日 개헌때 아시아에서 완전 독립』/노벨문학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 고강도 비판, 『세계일보』, 2005.5.5.

63) 오에 겐자부로, 박승애 역, 『(현대문학 세계문학 단편집 21) 오에 겐자부로 - 사육 외 22편』(2014), 현대문학, 2016.1, 747면 참조.

소개하는 맥락에서 사회비평 에세이 『말의 정의』 등이 간행되었다. 이 시점에 이르러 한국 독자는 오에 문학의 상당 부분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통의 경우 대중독자가 특정 작가의 대표작 1-2편을 읽는 게 일반적인 독서패턴임을 감안하면 장편소설에서는 『(을유세계문학전집22) 개인적인 체험』과 『(웅진지식하우스 일문학선집 시리즈4) 만엔 원년의 풋볼』, 단편소설집에서는 「사육」이 시선을 끈다. 『만엔 원년의 풋볼』에는 지금도 노벨문학 수상작이라는 떠지가 둘러져 판매되고 있다. 이는 노벨상의 권위에 기댄 판매전략이다. 또한 오에는 노벨상 수상 이후 1996~1997년에 걸쳐 실패작을 제외하고 결정본 『오에 겐자부로 소설』(전10권)을 일본에서 출판했는데, 이 책을 위해 쓴 월보(月報)를 모아 낸 게 최초의 문학적 자서전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문학사상사, 2000)다. 흔히 작가는 창작의 비밀을 숨기는 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오에 겐자부로는 오히려 다수의 기록을 남겨 독자의 이해를 도운 셈이다. 한국의 독자는 이런 책을 통해 오에의 문학세계에 진입할 수 있었다.

가령, 할머니와 어머니가 들려준 일본 신화와 전설을 듣고 자란 오에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문화영화를 보면서 자연 속 사물을 제대로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1954년 대학 입학을 위해 도쿄로 이동하면서 그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명제를 의식화 했다. 당시 프랑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문학과 바슐라르의 상상력에 문학적 영감을 받은 그는 일본 사소설을 극복하려고 했다. 1963년 지적 장애아 히카리가 태어나면서 그도 사소설적인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픽션을 도입하여 일본 근현대의 사소설을 해체했다고 자부했다.<sup>64)</sup> 한국 독자는 여기까지만 『나라는 소설가

64)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생애의 소설 방법을 쌓아 왔던 것이다. 『그리운 해에게로 띄우는 편지』의 전개에서 그 뒤 나의 소설 방법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던 것은, 내가 만든 픽션이 현실 생활로 침입해 들어와서 실제로 산 과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새로운 기반을 이루어 다음 픽션으로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구조가, 내 소설의 형태가 된 일이었다. 이 점에서 나는

만들기』을 읽어도 장애아 출생과 수술 여부를 고심하는 『개인적인 체험』과, 안보투쟁(1960) 이듬해 중심 도쿄에서 주변 시코쿠로 이동하여 장애아 돌봄의 책임과 ‘신화적’ 민중봉기를<sup>65)</sup> 모색하는 『만엔 원년의 풋볼』의 내용을 상당부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작품에는 구토(감), 혐오, 수치란 단어가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데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작품 『구토』가 쉽게 연상된다. 또한 초여름 날씨가 배경인 『개인적인 체험』은 주인공이 자신의 아기가 태어난 후 “의식의 결락”을 얘기하고 퇴영적인 정신 상태를 선보이는데 “일광에 노출된 머리”<sup>66)</sup>란 압축적 표현은 카뮈의 『이방인』을 떠오르게 한다.

실제로 오에는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에서 문체를 논할 때 사르트르와 카뮈를 언급했다. 그는 『만엔 원년의 풋볼』부터 문장이 난해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문장론을 공개한 셈이다. 책에서 오에는 문장을 “어떤 주제 혹은 장면의 정곡을 찌르는” 카뮈식과, “산 위의 성을 공격할 때 산자락을 포위하고 공격해 올라가는 식으로 주위를 확실히 확보해 말을 짧으며 원하는 표현”을 하는 사르트르식으로 구분했다. 사르트르식으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체념하면서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는 한국에서 절필을 선언했던 당시 출간된 장편소설 『익사』

일본 근·현대의 사소설을 해체한 인간이라고 불려도 좋을지 모른다. 본래 쓰여진 소설은 모두 픽션이다.” 오에 겐자부로, 김유곤 역,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 문학사상사, 2000, 127면.  
 65) 『만엔 원년의 풋볼』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카니발로서의 혁명, 역사적 반복 속에서 변형되는 혁명’을 선취했다는 고평을 받았다. (가라타니 고진 외, 송태욱 역, 『현대 일본의 비평』, 소명출판, 2002, 414-424면) 축제와 신화적 사고는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으나, (오에 겐자부로, 송태욱 역, 『말의 정의 - 오에 겐자부로의 비평적 에세이』(『정의집』, 2012), 뮤진트리, 2018, 227-228면) 그 기원은 『히로시마 노트』에서도 발견된다. 오에는 히로시마에서 ‘유등(流燈) 행사에 참석했다. 평화대교 아래 강가에서 띄워 보낸 빨강, 노랑 그리고 이따금 파란 등불들이 만조에 밀려 역류한다. 왼쪽 이후 생겨난 이런 행사를 히로시마 시민들은 수백 년간 이어 온 민간전승처럼 생각하고 있다.’(오에 겐자부로, 이애숙 역, 『히로시마 노트』(1965), 삼천리, 2012, 49면) 이 히로시마 체험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그는 『만엔 원년의 풋볼』에서 중요한 지역전승 축제를 붕괴와 관련지어 서사의 핵심 장치로 활용했다.  
 66) 오에 겐자부로, 서은혜 역, 『(을유세계문학전집22) 개인적인 체험』, 을유문화사, 2009, 183면.



까지도 그 지향을 버리지 못했다.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늦게 온 청년』의 실패를 깨달은 후 편년체의 장편을 두 번 다시 쓰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내가 취한 방법은 소설의 서사적 전개를 짧은 범위를 나눈 다음, 거기에 몇 종류의 시간 계열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만연 원년의 풋볼』에서 네도코로 형제가 숲 속 마을로 귀향해서 비극이 끝나기까지의 짧은 기간과 거기에 겹쳐지는 백 년이라는 긴 기간이, 이후에 쓴 장편소설 서술 방법의 기본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서술 방법에 의거하게 된 것은 젊었을 때부터 도스토예프스키와 포크너의 작품을 계속 읽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sup>67)</sup>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오랫동안 활동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주자의 달리는 방법을 익히는가에 생애 전체의 의미가 걸려 있다”는 대목이다. 한국의 상당수 소설가의 작가적 수명이 짧은 것을 감안하면 그의 고민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들 히카리의 탄생으로 소설 주제면에서 장애아와 가족소설을 구상하게 된 그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sup>68)</sup> 시간 계열의 방법론에 사회 현안을 절합하여 ‘메이지유신(1868) 이후 해당 작품이 출간된 1967년의 100년’과 ‘민중봉기(1860) 이후 안보투쟁(1960)의 100년’을 시간축으로 한 『만연 원년의 풋볼』을 완성했다. 오에는 이렇게 완성된 기존 소설을 후속작에서 다시 고쳐 쓰며 변주하는 방식의 창작방법론을 구성했다.

문제는 오에가 여기에 ‘다른 작품의 주식 달기’ 수법까지 가미했다. 독자가 『익사』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을 미리 이해

67) 오에 겐자부로, 김유곤 역,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 문학사상사, 2000, 141면.

68) “소설가에게 뭐가 중요한가, 그것은 시간이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고.” 오에 겐자부로·후루이 요시키치(대담), 송태욱 역, 『오에 겐자부로의 말』, 마음산책, 2019.1, 135면.

하지 못했다면 『익사』의 완전한 독해는 불가능하다. 이는 독자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그의 『타오르는 푸른 나무』는 에이츠, 『새로운 인간이여, 눈을 떠라』는 블레이크의 주석 소설이기도 하다. 또한 작가는 책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추리소설에서 사건의 전모가 작품 말미에서야 밝혀지듯 작품 상당수가 후반부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서사 전개를 취한다. 『만엔 원년의 풋볼』에서 증조부 동생의 행적과 죽은 둘째형 S의 죽음, 『익사』에서 서사의 두 축인 ‘아버지의 익사 순간’과 ‘큰아버지의 강간’의 진실이<sup>69)</sup> 작품 막바지에 나타난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오에 소설은 지루하고 난해하다는 인식이 굳어졌으며 일본에서도 1970년대 초중반부터 독자가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과 한국 등 각국에서 인기를 얻자 오에는 문단 내 자신의 위치를 의식했다. 그는 자신이 패전 후 ‘제3신인’보다 다음 세대 작가이며 무라카미가 ‘21세기 작가’라면 자신은 ‘20세기 작가’라고 규정했다. 자신의 소설 언어가 문어체인데 반해 무라카미는 구어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소설에 구어체가 사용되는 것에 부정적이었으며 참된 문학은 순문학이고 독자는 “순문학을 읽어야 지적인 창조를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연장선에서 오에는 “작가는 지식인으로서 어떠한 장래를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70)</sup> 결과적으로 순문학자, 전후민주주의자인 오에의 작품은 점점 대중성을 상실하며 세계문학의 ‘고전’이 되어 갔지만 노벨상 수상 이후 실천적 사회참

69) 『익사(水死)』는 ‘나’와 우나이코의 사연이 서사의 두 축이다. 주인공 ‘나’(조코 코기토, 74세 남성)는 자신이 어릴 때 익사한 아버지(군인들과 쫓겨난 아버지가 홍수로 갑자기 불어난 강에 배를 띄웠다가 죽은 사건)의 죽음의 진실을 드러내 명예를 회복시켜주고자 한다. 또한 우나이코(혈거인 극단배우, 30대)는 과거 큰아버지에게 강간과 낙태를 당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진실을 자신의 연극을 통해 고발하고자 한다. 오에 겐자부로, 박유하 역,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28』 익사(2009), 문학동네, 2015, 377, 388, 424-427면.

70) 오에 겐자부로, 윤상인·박이진 역,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한다』(2007), 문학과지성사, 2012, 264면, 345-347면, 382면.

여를 통해 ‘지식인’으로 거듭나면서 한국에서는 ‘아시아의 지식인’으로 자리매김했다.

## 5. 나가며 : ‘지금 여기’ 『만엔 원년의 풋볼』 읽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에 겐자부로는 아쿠타가와상 수상자로 한국에 처음 알려졌다. 1960년대 한국에 번역된 그의 작품은 『개인적인 체험』(1964) 이전의 것이었다. 1950년대 중후반 일본 젊은 대학생의 정서를 대변하는 소설이 한국에 번역되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1970~1980년대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1994년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오에의 문학뿐만 아니라 일본 순수문학과 문학 계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출판시장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1998년 일본대중문화의 개방과 맞물렸다. 오에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1990년대 한국의 일본 붐과 독서시장을 이해하는 핵심적 문화현상이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노벨문학상 작품의 소비는 독자에게 독서교양의 강화와 문화적 충족감을 높이는 독서행위이다. 노벨상 수상은 일본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게다가 ‘전후민주주의자’로서 작가의 대내외 활동은 한국의 민주성향의 대중독자를 유인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래서 일본의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원로 지식인으로 각인된 오에의 글은 소설보다도 에세이가 더 의미 있게 인식되었다. 작가 개인으로서도 노벨상 수상과 한국방문, 한일관계 변화, 일본 내 사회참여 확대가 작가의 사회의식과 지식인의 위상을 강화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은 한국인은 일본 지식인의 사유와 진정성을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이를 떼면 한국인은 오에가 “국가가 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개개인의 의지가 어떻게 우리는 국민 전체의

의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일본 정치학자 난바라 시게루의 강연을 듣고 “제 자신의 허약함을 의식했다”는 기록에서<sup>71)</sup> 전체주의적 사고를 발견하고 다소 당혹스러워하며<sup>72)</sup> 일본인 전후민주주의자를 의심하기도 했다. “전후 10년간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도덕감각을 형성했다”는<sup>73)</sup> 오에가 일본인으로서 (국가주의와 구분된) 전후 일본 ‘부흥’의 열망과 분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그 연장선에서 『만엔 원년의 풋볼』도 “오키나와의 근대화”<sup>74)</sup>의 사유가 반영된 작품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한국인이 일본의 전후문학자의 작품을 번역·수용했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서점에 배치된 일명 세계문학, 노벨문학상 작품은 정전화 된 권위와 문화권력의 아우라에 의해 오히려 역사적 함의가 배제된 채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만엔 원년의 풋볼』 책에 둘러진 노벨문학상 띠지가 한국인의 독서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만엔 원년의 풋볼』에서 고향의 ‘슈퍼마켓 천황’의 조선인 설정은 많은 의구심을 낳는다.

우선 작은 슈퍼가 생겨서 개인 상점의 손님들을 빼앗아가지요. 그리고 어느 사이엔가 거대화되는 겁니다. 그런 경제체제로 변하고 있었어요. 나는 친구가 말한 것을 힌트로 ‘슈퍼마켓의 천황’을 생각해냈습니다. 실제 그러한 새로운 모습의 경제적 지도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지도 모르지요. 이는 도회의 문화와 지방의 문화가 균질화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sup>75)</sup>

71) 오에 겐자부로, 송태욱 역, 『말의 정의 - 오에 겐자부로의 비평적 에세이』(『정의집』, 2012), 뮤진트리, 2018, 34-35면.

72) 『행동하는 지성이 펼쳐낸 일본 문화와 사회』, 『서울신문』, 2014.3.15.

73) 오에 겐자부로, 채숙향 역, 『말하고 생각한다 쓰고 생각한다』(2004), 지식여행, 2005.7, 275면.

74) “도쿄에 남겨두고 온 세 살이지만 아직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들, 그리고 제 고향에서 백 년 전에 일어난 농민봉기가 그려져 있으며, 그것을 오키나와의 근대화와 관련시켜 구상한 『만엔원년의 풋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에 겐자부로, 송태욱 역, 『말의 정의 - 오에 겐자부로의 비평적 에세이』(『정의집』, 2012), 뮤진트리, 2018, 4, 364면.

오에는 자신의 고향의 변모에서 전후 경제발전, 식생활을 비롯한 지방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전국 균일화 풍경을 주목했다. 그는 이 점을 미군이 점령한 “오키나와의 근대화”와 결부지어 작품에 ‘슈퍼마켓의 천황’을 만들었는데 한국인이나 재일조선인의 시각에서 보면 당황스럽다. 식민지 시대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마을 인근의 부락민 조선인이 갑자기 자본가로 변신하여 ‘슈퍼마켓의 천황’이 된 것은 일반적인 재일조선인의 처지나 일부 성공담과도 부합하지 않다. 이는 오키나와를 연상시키는 미국인에 의한 침탈의 상상력도 아니다. 무엇보다 슈퍼마켓의 천황이 재일조선인이 아니었다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붕기’가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작가의 의도적 설정 없이 애초에 이 작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굴욕감이 재일조선인을 향한 거부 감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가 이 소설에서 강조한 일본 민중봉기 100년의 역사는 ‘만엔 원년’(1860)을 기준으로 1945년 조선인부락 습격, 1960년 안보투쟁, 1961년 ‘슈퍼마켓 천황 습격’으로 전개되는데, 1945년과 1961년의 사건은 일본인의 정의로운 민중행동이 아니며 죄 없는 사람도 죽었다. 오히려 네 사건의 공통점은 ‘영웅적 민중 민족주의’ 그리고 ‘타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정리하면, 오에는 패전과 미군의 점령에서 느낀 일본인의 굴욕과 전후감정을 포착하고 투사하여 『만엔 원년의 풋볼』을 산출한 셈이다.<sup>76)</sup> 그럼에도 우리의 광고 띠지에는 “인간의 실존을 끊임없이 고민해 온 ‘시대의 지성’ 오에 겐자부로, 전후 일본 문학의 맹아를 만나다!”라고 쓰여 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문학’을 수용하는 한 방식이다.

75) 오에 겐자부로, 윤상인·박이진 역,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한다』(2007, 문학과지성사, 2012, 146면.

76) 오에는 소설에서 증조부 동생이 미국행을 하지 않고 2차 봉기에도 참여했다고 설정했다. 오에 겐자부로, 박유하 역, 『(웅진지식하우스 일문학선집 시리즈4) 만엔 원년의 풋볼』, 웅진지식하우스, 2017, 536-538면.

요컨대 오에 문학의 번역과 초청 등의 문화적 국제행사는 양국의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 연대 증진의 맥락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오에의 자기갱신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문학(전집) 번역은 작가의 자기 갱신 이전의 과거 작품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가령 『만엔 원년의 풋볼』(1967)은 오에가 1990년대 중후반 한국인을 독자로 의식하기 훨씬 이전의 작품이다. 또한 「세븐틴」(1961.1)에서도 “나는 석간신문을 되풀이해 읽기도 하고 텔레비전을 힐끗거리면서 김치를 씹고 차를 마시고 했다. 시골에서 살던 중학생 때 키가 큰 한국인 동급생에게 키가 작다고 언제나 괴롭힘을 받은 걸 생각하며 나는 김치를 씹고 차를 마시고 있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sup>77)</sup> 1950년대 후반 제일조선인 동급생에게 일본인 ‘나’가 지속적으로 이지매를 당했다는 설정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대목은 해당 작품의 전체 서사에서 전혀 불필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민족의식 및 역사관이 (무의식적으로) 투사된 전후문학의 번역 수용은 해당 작가의 이름이 갖는 ‘문화적 권위’에 함몰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본 전후민주주의자’ 오에의 사례가 환기하고 있다.

---

77) 오에 겐자부로, 박승애 역, 「세븐틴」, 『(세계문학단편선21) 오에 겐자부로 - 사육 외 22편』, 현대문학, 2016, 198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YTN

開高健, 有吉佐和子, 大江健三郎, 金龍濟 外 譯, 『戰後日本短篇文學全集 5』, 日光出版社, 1965.9.

동서문화사 편, 『日本文學大全集』1-9, 동서문화사, 1975.

백철 외 編, 계용목 외 역, 『日本戰後問題作品集』(1960), 新丘文化社, 1963.

新丘文化社 編, 『現代世界文學全集6』, 서울 : 新丘文化社, 1968.3.30.

大江健三郎, 金元基, 趙能植 譯, 「Seventeen」, 『日本代表作家百人集 5』, 金素雲 外 編, 金東史 外 譯, 서울 : 希望出版社, 1966.11.20.

오에 겐자부로, 임현 역, 『외침 소리』, 동남문화사, 1976.

大江健三郎, 『한밤의 속삭임』, 대흥출판사, 1982.

오에 겐자부로, 이호철 역, 「성적 인간」, 『오늘의 세계문학9 - 사랑의 목마름, 잔치가 끝나고, 성적 인간』, 이원섭 외 역, 중앙일보사, 1982.

오에 겐자부로, 이범열 역, 「일상생활의 모험」, 『현대의 세계문학30-돈황, 침묵, 일상생활의 모험』, 범한출판사, 1984.

오에 겐자부로, 정영표 역, 『일상생활의 모험』, 하문사, 1994.10.27.

오에 겐자부로, 오상현 역, 『구세주의 수난』, 고려원, 1995.2.

오에 겐자부로, 김유근 역, 『나라는 소설가 만들기』, 문학사상사, 2000.

오에 겐자부로, 채숙향 역, 『말하고 생각한다 쓰고 생각한다』(2004), 지식여행, 2005.7.

오에 겐자부로, 「나의 문학과 지난 60년」(2006년 고려대 특강), 『日本研究』 第7輯,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2007.8, 15면.

오에 겐자부로, 서은혜 역, 『(을유세계문학전집22) 개인적인 체험』, 을유문화사, 2009.

오에 겐자부로, 이애숙 역, 『히로시마 노트』(1965), 삼천리, 2012.

오에 겐자부로, 윤상인·박이진 역,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한다』(2007), 문학과지성사, 2012.

오에 겐자부로, 박유하 역,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28) 익사』(2009), 문학동네, 2015.3.10.

오에 겐자부로, 박승애 역, 『(현대문학 세계문학 단편선 21) 오에 겐자부로 - 사육 외

22편』(2014), 현대문학, 2016.1.

오에 겐자부로, 박유하 역, 『(웅진지식하우스 일문학선집 시리즈 4) 만엔 원년의 풋볼』, 웅진지식하우스, 2017.

大江健三郎, 『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 講談社, 2018.1.

오에 겐자부로, 송태욱 역, 『말의 정의 - 오에 겐자부로의 비평적 에세이』(『정의집』, 2012), 뮤진트리, 2018.

오에 겐자부로 · 후루이 요시키치(대답), 송태욱 역, 『오에 겐자부로의 말』, 마음산책, 2019.1.

<https://www.youtube.com/watch?v=pznLWxjUfpY> (2010.1.5. NHK)

## 2. 단행본

가라타니 고진 외, 송태욱 역, 『현대 일본의 비평』, 소명출판, 2002, 414-424면.

고영자, 『오에 겐자부로』, 건국대학교출판부, 1998.6, 127면.

권남희, 『동경신혼일기』, 서울 : 무당미디어, 1996.5, 114-116면.

김윤식, 『앵거주춤한 문학의 표정』, 솔출판사, 2010, 13-14면.

김지하, 『님』, 솔출판사, 1995, 112-116면.

도미오카 고이치로 외, 김경원·송태욱 역, 『오늘의 일본 문학』, 웅진지식하우스, 2011.12, 62-73면.

스즈키 사다미, 정재정 · 김병진 역, 『일본의 문화내셔널리즘』, 서울 : 小花, 2008, 269면.

야스에 료스케, 지명관 역, 『칼럼으로 본 일본사회』, 소화, 2000, 274면.

와타나베 히로시, 서은혜 역, 『오오에 겐자부로』(1973, 1994), 전주대학교 출판부, 1997, 171-172면.

조세영,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2014, 212-215면.

표정훈, 『대한민국이 읽은 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8, 176-190면.

하야시 히로후미, 현대일본사회연구회 역, 『일본의 평화주의를 묻는다』, 논형, 2012.

혼다 가즈이치(本多勝一), 양역관 편역, 『오에 겐자부로 : 일본형 지식인의 빈곤한 정신』, 서울: 하소, 1995, 7-111면.

황석영, 『수인1』, 문학동네, 2017, 256면.

## 3. 논문

고영자, 「오에 겐자부로 문학에 나타나는 한국인상(像) -『아이 싹 훑기』를 중심으로」, 『용봉인문논총』 27권0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12, 31-56면.



- 남상욱, 「전후 일본문학 속의 ‘한국전쟁’ - 한국전쟁과 전후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비교한국학』 23권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4, 11-37면.
- 안정화, 「오에 겐자부로 문학의 전후 민주주의적 표현 양상」, 『日本語文學』 第38輯, 일본어문학회, 2007.8, 345~360면.
- 유승창, 「오에 겐자부로 문학에서의 기억과 역사인식 : 『万延元年의 풋볼』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第32輯,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3, 255-273면.
- 유승창, 「아사누마 사건과 오에 겐자부로 문학의 전후인식 - 『세븐틴』을 시점으로」, 『일본학』 29집,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09.11, 251-274면.
- 이행선, 양아람, 「1960년대 초중반 미·일 베스트셀러 전쟁문학의 수용과 월경하는 전쟁기억, 재난휴머니즘과 전쟁책임 - 노먼 메일러(Norman Mailer) 『나자와 사자』와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 『인간의 조건』」, 『기억과 전망』 36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7.6, 42-51면.
- 이행선, 양아람, 「『추악한 미국인』(1958)의 번역과 동아시아의 추악한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1993) - 혐오와 민족성, 민족문화론」, 『한국학연구』 4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2, 315-350면.
- 이행선, 「알랭 로브그리예(1922-2008)의 번역 수용과 누보 로망(Nouveau Roman) - 이 어령, 박이문, 김현, 김치수, 하일지」, 『대동문화연구』 10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8.06, 519-556면
- 이행선, 「오다 마코토(1932-2007)의 번역 수용과 한·일 시민연대의 기억」, 『아세아연구』 63권 3호(통권181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0.09.30, 109-137면.
- 장인수, 「실재와 환영, 혹은 제의로서의 소설 쓰기 : 고마쓰가와 사건의 문학적 재현」, 『한국학논집』 제72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9, 179-207면.
- 조미경,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타자> 표상 - 『만엔원년의 풋볼』(萬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에서의 제일조선인 표상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2.10, 435-453면.
- 최재철,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 문학 속의 ‘조선인’상 - 『만엔 원년의 풋볼(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60권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6, 227-251면.
- 홍진희,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의 전후인식과 그 전개」, 『日本文化學報』 第34輯, 한국일본문화학회, 2007.8, 559-574면.

<Abstract>

Kenzaburo Oe's the Acceptance of Translation  
and Postwar Literature(literator)'s Crossing border  
- Japanese Literature's Boom in the 1990s, the Korean-Japanese  
Citizens' Solidarity

Lee, Haeng-seon

The article aims to examine the literary influence of Kenzaburo Oe (1935-), a leading writer of Japanese post-war literature, and diachronic adoption history through his novels, prose and visit to Korea. Kenzaburo Oe, commonly known as the author of *A Personal Matter* (1964) and *The Silent Cry* (1967), has long been known in Korea. The first translation began in the early 1960s, when Oe wo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in 1994 and visited to Korea the following year. There have been four invitational visits to South Korea in more than two decades, and Oe announced the end of his writing career in 2015. As such, he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postwar literature in Japan, but only after winning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he began to become known in earnest in Korea. In addition, he became recognized as the epitome of Japanese practical intellectuals beyond the category of litterateur after the 2000s. Considering the interest and consumption of Japanese literature are significa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search the influence of Japan's Nobel Prize writer, his work on Korean readers and the reading market. In short, this article is a project of research in translation and literature history that comprehensively understands Kenzaburo' Oe's diachronic adoption history.

Key words: Postwar Literature, Postwar Democracy, Nobel Prize for Literatur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Pacifism

투 고 일: 2021년 5월 29일

심 사 일: 2021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 2021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2021년 6월 22일